

# 姜시장 “日오염수 17개 시·도 공동 대응” 金지사, 자치사무 자치입법권 확대 강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지·연대 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 10월 전남 개최 제안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강 시장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17개 시·도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김 지사는 자치사무 자치입법권 확대를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협의회 주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7월로 통보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임박하자 미야기 현 지사 등 일본 내에서도 공식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도 방류 통보 만으로도 소금 사재기 등 곳곳이 동요하고 있고, 소금으로 인해 광주 김치 산업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범주에 속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와 위험, 비용은 모두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인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지지와 연대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21대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

하다”며 “5·18정신과 가치가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16개 시·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국체전이 열리는 오는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전남 개최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불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하천 국가 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레이저산업 국가 거점 도약 포석

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철실에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및 국내 유일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실행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레이저 연구 및 산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이날 착수보고회는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및 이와 연계한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통해 레이저산업 국가거점으로 도약하는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과 나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레이저 부품 국산화 품목 발굴 ▲산업부 주관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 지정에 대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전남도가 레이저산업 국가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레이저산업을 활용한 전남 권역별 전략산업 고도화 방안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나눠 나주에는 레이저종합 클러스터, 동부권엔 우주·항공·신소재·철강산업, 북부권엔 장비·소재·부품

산업, 중부권엔 의료·바이오 산업 등 지역별 차세대 산업과 레이저산업 간 시너지를 얻기 위한 전략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선도기업 등 레이저 기업 20개 유치, 고용 5천여명 창출 등을 통해 약 1조 5천억원의 총생산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장은 “용역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형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고교학점제 어떻게

## 수강과목 골라 교실 이동 수업

그동안 전면 도입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가 21일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 교실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처럼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대입 진로 방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것인데, 전면 시행 전까지 불과 1년 반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교실로 찾아오는 선생님을 맞이

할 자리 등 보다 다채로운 과목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들 선택과목에서 수능 출제 과목이 포함될지는 앞으로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면 다른 학교와 의·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연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과목도 이수 기준이 생기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학업성취율 40%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방과 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 등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앉아만 있어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공부하

2학년 때 과목 선택 3년간 192학점 이수

성취율 등 기준 미달엔 보충지도 받아야

전면시행 D-18개월...제도 안착 미지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과목을 들을 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수하지 못해 하위권 학생의 경우 수업을 더욱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졸업을 위해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는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 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 48학점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진로·융합)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일반선택과목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등 기존 수능에 출제됐던 과목이 포함된다.

진로선택과목은 주제 탐구 독서, 문학 교양 영상, 영미 문학 읽기 등, 융합선택과목은 수학과 문화, 미디어 영어, 어

고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하위권 학생들을 챙겨 교육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 목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자, 이를 위해 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했다.

교육부는 2021년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예고해왔다.

지금도 일반고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업을 들으면 이수가 자동으로 되고 성적도 상대평가로 받는 등 이전 시스템이 남아 있었다.

다만 수능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들었던 예전 교실과는 달리 다양한 선택 과목을 보다 신경 써서 들어야 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아직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현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해왔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